

## 중국 木蘭 서사와 현대적 이미지 변용\*

김 명 신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중국의 木蘭 서사와 현대 애니메이션, 영화, 소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忠孝義의 관념과 애정 갈등, 목란의 이미지 변화, 주변인물의 이미지와 역할을 살펴보고자 했다.

목란 서사는 忠·孝·義의 관념을 반영하고 있는데, 현대에 이르러 애정과 결합되어 미묘한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물란2」, 영화 「물란: 전사의 귀환」에서는 충과 애, 충과 의가 갈등을 일으키지만 충이 무엇보다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목란은 효녀의 이미지에서 근현대 작품으로 가면서 좀 더 다양한 이미지를 가진다. 요컨대 충정과 자기희생의 여성영웅에서 애정과 충정의 갈등 심리를 표출하는 여성이자 자아의 성장과 함께 영웅성을 발현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주변인물은 근현대 작품에서 「木蘭詩」보다 훨씬 풍부하게 창조되었다. 그중에서 두드러진 이미지를 가진 인물은 환상적 조력자, 현실적 조력자, 표면적 조력자로 분류된다.

환상적 조력자는 무슈와 쉬쉬가 대표적이다. 무슈는 수다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새끼용으로서 목란을 원조한다. 쉬쉬는 위풍당당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돌사자로 지옥에서 목란을 보조한다.

현실적 조력자는 喪桴 대사와 小虎인데, 喪桴 대사는 목란에게 무술을 직접 전수하고 小虎는 슬픔에 빠진 목란이 정신 차리도록 질책한다.

표면적 적대자는 獨手大仙, 멍포로 대표된다. 獨手大仙은 백여우 요괴로 사술을 부리며 목란을 괴롭히고 멍포는 노부인, 여우, 학 등으로 변신하여 목란이 지옥에서 리상을 구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러나 멍포가 임무에 실패한 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9S1A5B5A07110206)

깨끗이 승복하고 목란을 축복한다는 면에서 독수대선과 구별된다.

주제어 : 木蘭, 忠孝勇烈奇女傳, 물란, 물란 2, 물란: 전사의 귀환, 여성영웅, 이미지, 변용

## 1. 들어가는 말

중국의 木蘭<sup>1)</sup> 서사가 왜 서구에서 활용되었을까? 국가와 가정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점점 삭막해지는 현 상황에서 충정과 효심은 대중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핵심 코드였기 때문이다.

木蘭은 중국의 여성영웅인데 고대의 詩로부터 고전소설, 현대의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되고 있다. 목란 서사는 중국 내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유행했고 미국의 월트 디즈니 픽처스(Walt Disney Pictures)에서도 애니메이션과 實寫板 영화로 제작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목란 서사는 본래 중국 고유의 서사였지만 세계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는 흥미로운 서사로 만들어졌다고 하겠다.

木蘭 서사는 清代 『忠孝勇烈奇女傳』에 이르러서 비교적 완전한 소설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현대에 이르러 서구의 애니메이션 「물란」, 「물란2」와 소설 「물란: 새로운 여정」은 목란 서사에 애정을 가미하여 창작되었다. 중국 영화 「물란: 전사의 귀환」에서도 애정의 요소를 삽입하여 내용을 다채롭게 만들고 있다.

1) 明代 徐渭는 木蘭이 ‘花氏’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忠孝勇烈奇女傳』의 목란은 특이하게도 ‘朱氏’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명확하게 고증이 되어 있지 않아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하긴 힘들다. 花氏는 漢族 중심의 세계관이, 朱氏는 소수민족을 아우르고자 하는 통합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김명신, 『忠孝勇烈奇女傳』의 悲劇的 女性英雄, 『中國小說論叢』 제59집, 2019, 12, 75-94쪽 참조.

木蘭 서사가 널리 전파되었지만 목란은 단순히 충과 효의 상징이라는 견해에 편중되어 있다. 목란 서사에는 충과 애, 충과 義의 갈등과 충돌 상황이 표출되어 있고, 목란도 다양한 이미지로 변모되고 있으며 주변인물도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변용되고 있다.

중국과 서구의 木蘭 서사는 미묘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이점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목란 서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忠孝勇烈奇女傳』, 「물란」, 「물란2」, 「물란: 전사의 귀환」, 「물란: 새로운 여정」을 중심으로 ‘忠·孝·義’의 관념과 애정의 갈등, 목란 이미지의 변화 양상과 주변인물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및 대상작품

효의 상징인 木蘭은 비록 중국의 「木蘭詩」에서 비롯되었지만 디즈니사에서 애니메이션의 소재로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사가 되었다. 목란에 관한 소논문은 다음과 같은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인물 형상 관련해서는 박진숙, 박경희, 조현미, 이종한, 조필호·최인숙, 권재웅, 함영은, 孫丹丹, 이영숙, 김지희·이승하, ZHIPENG LI·변혁, 김명신 등의 논문이 있는데 다양한 각도로 인물의 이미지를 분석했다.<sup>2)</sup> 애니메이션 「물란」의 이미지만을 검토한 논문들이 많고 그

2) 박진숙의 「오리엔탈리즘을 넘어: 킹스톤의 女人武士와 영화 Mulan에 나타난 Mulan의 변이」(『현대영어영문학』 50집, 2006.11), 박경희의 「여성주체의 변화와 허구-木蘭詩와 디즈니의 Mulan을 중심으로」(『동화와번역』 12집, 2006.12), 조현미의 「영혼의 형상이미지 대한 연구-애니메이션 「기동아, 부타해(花田少年史)」를 중심으로-」(『애니메이션연구』 3집, 2007.6), 조현미·이종한의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神의 이미지 표현 분석」(『기초조형학연구』 8집, 2007.8), 조필호·최인숙의 「애니메이션 「물란」의 가정지향적 여성영웅성 연구」(『한국디자인포럼』 22집, 2009.2), 권재웅의 「Storytelling 내부의 캐릭터 변용에 관한 연구: 「木蘭詩」와 「Mulan」의 사례 비교분석」(『만화애니메이션연구』 25집, 2011.12), 함영은의

중에서 이영숙과 김명신은 중국의 원전을 중심으로 탐구했다는 면에서 비교적 두드러진다.

둘째, 서사의 비교에 관한 내용은 이자원, 권경민, 강지원, 유강하, 김하림, 이용재, 陳洪英, 黃曦, 김윤호, 리청·최원호가 있다.<sup>3)</sup> 이 논문들은 2001년부터 대화, 시점, 스토리텔링, 신화와의 비교, 정신분석적인 탐색을 하고 있다. 특히, 김하림은 『목란시』와 『물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애니메이션 『물란』이 창조적 상상력을 부여하여 흥미와 오락성을 배가하였음에 주목했고 유강하는 혼례와 전쟁을 대비 묘사하며 재편된 목란 고사가 작가 킹스틴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분석했다.

셋째,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관해서는 김일환, 최용성, 안정훈, 유강하,

「木蘭故事的變異及傳承 - 以詩歌、小說、戲曲、說唱為考察範圍」(『중국어문학지』 37집, 2011.12), 孫丹丹의 「花木蘭, 定居好萊塢的公主」(『電影』, 2012.3), 이영숙의 「독자문화 고찰을 통한 한중 목란 형상 담론-조선후기 『鄭木蘭傳』과 淸 후기 『北魏奇史閨孝烈傳』 『忠孝勇烈奇女傳』을 중심으로」(『중국어문화연구』 27집, 2015.2), 김지희·이승하의 「문화콘텐츠 속 여성상의 변화양상-옛 이야기를 원천으로 한 콘텐츠를 중심으로」(『글로벌문화콘텐츠』 19집, 2015.5), 이영숙의 「1920-30년대 韓國 歷史小說에서의 木蘭 형상」(『중국어문화연구』 30집, 2015.11), ZHIPENG LI·변혁의 「木蘭 이미지의 발전과 변화」(『아시아영화연구』 12집, 2019.11), 김명신의 「『忠孝勇烈奇女傳』의 悲劇的 女性英雄」(『중국소설논총』 제59집, 2019.12) 이다.

- 3) 이자원의 「영화의 다이얼로그-영화-물란을 중심으로」(『영어교육연구』 13집, 2001.3), 권경민의 「애니메이션 서사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7집, 2007.6), 강지원의 「주관적 시점의 변형으로 사용된 객관적 시점 화면에 대한 고찰-『물란』의 over the shoulder shot을 중심으로-」(『애니메이션연구』 4집, 2008.6), 유강하의 「이야기의 재구성, 治癒를 위한 storytelling-목란고사 再編: 킹스틴의 『女人武士』 『흰 호랑이들』 장을 중심으로」(『中國語文學論集』 제56집, 2009.6), 김하림의 「『木蘭詩』에서 애니메이션 『물란』으로」(『중국인문과학』 제43집, 2009.12), 이용재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물란』의 스토리텔링 분석」(『중국어문학논집』 제60집, 2010.2), 陳洪英의 「論『木蘭辭』與『花木蘭』電影的改編」(『電影文學』, 2010.5), 黃曦의 「中美兩部『花木蘭』電影對比研究」(『電影文學』, 2011.2), 김윤호의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神話에 관한 고찰: 일본·인도 간 비교를 중심으로」(『남아시아연구』 18집, 2012.6), 리청·최원호의 「『Mulan』의 영화 속에 나타난 精神分析學的 主體」(『영상기술연구』 1집, 2020.12) 등이다.

곽수경, 이영숙, 조현준, 李夏가 있는데,<sup>4)</sup> 서양의 오리엔탈리즘, 국가주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 정치 윤리 등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들이다.

넷째, 문화에 관련된 연구는 안정훈, 關詩, 이영숙, 모청·김혜경의 논문이 있다.<sup>5)</sup> 안정훈과 이영숙은 혼종성을 제기했는데, 안정훈은 중국과 서구 문화의 혼종을 논의하고 이영숙은 한족과 몽고족 사이의 혼종성을 언급하였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關詩는 주제음악이 전쟁의 참혹함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평했고 모청·김혜경은 로컬 문화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활용한 연출을 세계화된 요인 중의 하나로 제기한 점이 상당히 독특하다.

다섯째, 색채와 표현에 관한 연구는 김광환, 정미강·김재호, 샤오하이리·최동혁, 정이슬·김은정이 있다.<sup>6)</sup> 이러한 논문은 시각적인 관점

4) 김일환의 「디즈니 읽기: 물란의 이데올로기」(『영어영문학21』 17집, 2004.12), 최용성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성의 문화윤리교육」(『윤리교육연구』 15집, 2008.4), 안정훈의 「『물란』에서 「쿵푸팬더」까지 - 허리우드 애니메이션에 담긴 중국 재현과 중국 관념」(『중국소설논총』 제32집, 2010.9), 유강하의 「중국의,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영웅의 귀환-馬楚成의 『花木蘭』(2009)을 중심으로」(『중국소설논총』 제32집, 2010.9), 곽수경의 「『메이드 인 Hollywood』와 『메이드 인 차이나』」(『중국문학연구』 60집, 2015.8), 이영숙의 「물란의 정치학: 『목란시편』에 나타난 문화개방 및 소수민족 정책」(『중어중문학』 제66집, 2016.12), 조현준의 「『자기만의 방』과 『女人武士』를 통해 본 『Mulan』의 여성 주체 번역 실천: Judith Butler의 文化翻譯에 나타난 政治와 倫理의 가능성」(『여성문학연구』 39집, 2016.12), 李夏의 「從『編碼·解碼』理論淺析電影『花木蘭』」(『新聞研究導刊』, 2017.1)이다.

5) 안정훈의 「木蘭詩에서 『Mulan』까지-이야기의 변화와 文化的 혼종」(『중국어문학논집』 34집, 2005.10), 關詩의 「『花木蘭』-電影音樂評論」(『音樂生活』, 2010.2), 이영숙의 「몽골 제국과 목란의 신화화 -元代 木蘭 碑文에 투영된 문화적 혼종성 연구」(『중국문화연구』 제42집, 2018.11), 모청·김혜경의 「로컬 문화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요인에 관한 연구-물란(Mulan)을 중심으로-」(『한국영상학회 논문집』 18집, 2020.10)이다.

6) 김광환의 「『물란』과 『라이온 킹』에 나타난 색채스타일 비교연구」(『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6집, 2006.11), 정미강·김재호·이미영 외 1명의 「기능론적 관점에서 본 애니메이션의 신체언어 연구-Mulan, 미녀와 야수, Aladdin, 신밧드를 중심으로-」(『디자인학연구』 20집, 2007.2), 샤오하이리·최동혁의 「Animation과 영화에서 표현된 한복(漢服) 색채표현 비교 분석-애니메이션 『물란 I』, 1998』과 실사영화 『물란: 전사의 귀환, 2009』을 중심으로」(『한국색채학회논문집』 31집, 2017.2),

에서 디자인, 색채와 성 역할을 중심으로 탐구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여섯째, 여성주의 관련해서는 이영숙, 류다영, 양은경·이관표가 있다.<sup>7)</sup> 이전에는 여성주의에 대해 조금씩 언급되었다가 이영숙 이후로는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여인무사』, 『모아나』 등 여러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디아스포라와 서사구조를 논구하고 있다.

이외에, 2000년 초반부터 석박학위논문이 배출되어 목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다채롭게 되었다. 2편의 박사 논문과 8편의 석사논문인데,<sup>8)</sup> 이영숙의 박사논문은 중국의 여성영웅 목란 형상의 변이를 시대별로 살펴보고 다민족간의 문화적 수용 상황까지 분석했고, 이지봉의 박사논문은 애니메이션 목란 형상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석사논문은 목

정이슬·김은정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視覺的 표현에 따른 性別割 행동 분석: Mulan, 라공젤, Moana, 겨울왕국2 女性 캐릭터를 中心으로」(『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집, 2020.7)이다.

- 7) 이영숙의 「『女人武士』의 마이너리티 담론: 젠더와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中國文化研究』 25집, 2014.8), 류다영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의 수행적 젠더 정체성 연구」(『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집, 2019.12), 양은경·이관표의 「女性主義 觀點을 통한 文化콘텐츠 내 女性英雄性 연구: 디즈니 Animation, ‘Mulan’과 ‘Moana’의 女性英雄的 敘事構造 분석을 中心으로」(『인문사회 21』 11집, 2020.12)가 있다.
- 8) 민혜연의 「『木蘭詩』 研究」(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정명진의 『애니메이션 『花木蘭』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차현아의 『목란 형상의 변천 연구: 「목란시」에서 「목란」까지』(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여인의 『脫植民主義 觀點에서 본 중국 목란 전설의 변형과 한국에서의 수용: 중국의 목란 이야기와 디즈니 애니메이션 「Mulan」을 중심으로』(인하대 대학원 석사논문, 2012), 이영숙의 『木蘭 形象의 時代 變遷과 文化 受容 研究』(淑明女大 박사논문, 2013), 안현주의 『맥신 홍 킹스턴의 『女戰士』와 월트 디즈니의 「목란」에 나타난 내러티브의 변형과 그 의미』(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2014), 고리의 『중국오페라 『목란』(목란시편)에 관한 연구: 4개 아리아 중심으로』(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6), 진서금의 『木蘭 이야기의 장르적 변용에 대한 研究』(전남대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2018), 장연환의 『「목란」 고사의 서사 전환 연구』(전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2019), 이지봉의 『木蘭 이미지 변천에 대한 연구: 목란 영화 속에 나타난 타자성을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20)이 있다.

란의 원류, 중국어교육, 인물 형상, 한국적 수용, 서사 비교, 아리아 연구 등으로 구분되지만 개괄적인 논의에 다소 치중하고 있다. 아직까지 목란의 현대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구되지 않았고 목란의 주변 인물 중에서 새끼용 무슈<sup>9)</sup>를 제외하고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다. 목란의 이미지 변화 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변인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선행연구들은 애니메이션 「물란」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중국 원전작품을 주목한 연구는 적은 편이며 현대적 목란의 이미지를 비교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논문은 드문 편이다. 대상작품은 중국소설로부터 애니메이션, 영화, 서구의 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인 간극이 크고 매체도 다르지만 목란 서사를 활용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작품을 중심으로 목란과 주변인물의 이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작품은 1. 『忠孝勇烈奇女傳』 2. 「물란」 3. 「물란2」 4. 「물란: 전사의 귀환」, 5. 『물란: 새로운 여정』이다.

『忠孝勇烈奇女傳』은 일명 『木蘭奇女傳』이라고도 하는데, 작자 미상의 清代 간행본으로 4卷 32回이다. 현존 판본은 光緒 4년(1878) 常州樂善堂重刊本으로 春風文藝出版社의 『忠孝勇烈奇女傳』(1997)을 저본으로 한다.<sup>10)</sup>

「물란」은 1998년 디즈니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토니 밴크로프트(Tony Bancroft)가 감독했다. 중국의 목란 서사를 활용하고 애정 고사를 삽입하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9) 본래 한글 표기법에 의하면 ‘무슈’라고 적어야 옳지만 애니메이션에서 ‘무슈’로 되어 있고 독자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표기로 대신한다.  
10) 『忠孝勇烈奇女傳』은 중국고대회귀본 총서로 출판되었고 판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작품은 木蘭의 영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생에서부터 독특함을 드러내고 환상성을 가미하여 서사를 구성하고 있지만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하여 기존의 서사와 다름을 표출한다. 자세한 것은 김명신, 「『忠孝勇烈奇女傳』의 悲劇的 女性英雄」, 『중국소설논총』 제59집, 2019, 12, 75-77쪽 참조.

「물란2」는 2004년 디즈니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대럴 루니(Darrell Rooney)가 감독했다. 「물란」에 비해서는 인기가 별로 없었지만 목란과 공주들의 애정 고사를 중심으로 표현했다는 특징이 있다.

「물란: 전사의 귀환」은 馬楚成이 2009년에 감독한 영화로 중국의 주도로 전통의 목란 서사에 애정 고사를 가미하여 제작했다. 趙薇와 陳坤이 주연을 담당했는데 국가주의의 관념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물란: 새로운 여정』(원제: Reflection)은 2019년 디즈니사의 기획으로 엘리자베스 림(ELIZABETH LIM)이 창작한 소설로 성세희가 번역했다. ‘산유와의 전투에서 목란의 전략이 실패하고 리상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목란이 지옥에 있는 리상을 구출하기 위해 벌어지는 사건들을 박진감 넘치는 모험담으로 구성했다.<sup>11)</sup>

### III. 忠 · 孝 · 義의 관념과 애정의 갈등

‘내면의 진실한 마음’을 의미하던 忠 관념은 춘추시대부터 군왕에 대한 충성의 의미로 강조되기 시작한다. 漢나라 때부터 충의 중요성이 효를 압도하면서 충과 효의 우선순위가 확고해진다. 충효의 강조는 忠君 의식의 강화를 통한 왕조정치의 안정에 목적이 있다. 淸나라 말까지 제국시대 논의의 상당부분이 충효 문제로 채워진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墨子』에서 우리는 충과 효가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되며 관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충의 범주를 상당히 확대한 것이다. 「兼愛 하」편에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남의 부모를 아끼고 이롭게 하는 일에 종사한 후에 남도 나의 부모를 아끼고 이롭게 하는 것으로 보답한다.”<sup>12)</sup>하고 말한다.<sup>13)</sup>

---

11) 당초의 계획은 『忠孝勇烈奇女傳』, 「물란」, 「물란2」, 「물란: 전사의 귀환」의 네 작품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지만 애니메이션 「물란」의 속편격인 『물란: 새로운 여정』이 최근 출판되어 이 작품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국의 황제들이 ‘孝悌忠信’을 강조한 것은 한편으로 부모를 포함한 모든 존재의 상위에 있는 군왕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으며, 한편으로 백성들의 심리적 복종을 유도해 행정력 낭비 없이 자발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하겠다.

義에 대해서 공자는 仁義를 병칭해서 얘기했고 『說文解字』에서는 ‘위엄 있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己之威儀也)’이라고 했지만 仁은 내면적 수양과 관련이 있고 義는 외면의 실천과 관련이 있다.<sup>14)</sup> 본래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뜻하는 義는 현대에 와서 정의와 의리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忠·孝·義의 관념들이 목란 서사에도 융합되었는데 관념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까지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정황이 나타난다. 아울러 남녀의 애정이라는 감정이 추가되면서 현대의 목란 서사는 더욱 흥미롭고 풍부한 서사로 만들어진다.

## 1 ‘충과 애’의 갈등

『忠孝勇烈奇女傳』과 애니메이션 「木蘭」의 木蘭이 효심에서 출정한 것이라면 「木蘭2」의 목란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공주들을 흉노국으로 호위하게 되었으므로 충심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목란 서사와는 달리 디즈니사의 목란은 개인의 행복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영웅적 가치관을 가진 여성이다.<sup>15)</sup> 그녀는 공주들이 화친 때문에 정략결혼을 하게 된 것에 동정하고 마음가는대로 행동할 것을 주장한다. 리상(Li Shang, 李翔)

12) 卽必吾先從事乎愛利人之親，然後人報我以愛利吾親也.

13) 장현근, 『중국의 정치사상 관념의 변천사』, 한길사, 2016, 466-490쪽 참조.

14) 장현근, 상계서, 359-363쪽 참조.

15) 이 점은 중국 전통적인 木蘭의 이미지와는 상충되는 면이 있다. 중국의 목란은 나라와 민중을 위한 충심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디즈니사의 목란은 서양인의 관념이 투영되어 중국적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은 목란의 주장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책망하면서 “모두가 우리처럼 운이 좋지는 않아.”라고 한다. 목란은 리상을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개인보다 나라를 우선하는 관념을 이해하지 못하며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게 된다.

목란과 리상의 애정 갈등이 최고조를 이루게 되는 계기는 새끼용 무슈(Mushu, 木須)가 일부러 조장한 것이다. 무슈는 두 사람이 혼인하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진다고 여기고 두 사람을 갈라놓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목란이 리상을 ‘짜짜하고 입 냄새가 나는 돌머리 장군’이라고 험담을 늘어놓는 장면을 꾸며낸다. 리상은 천막 안에서 그 말을 듣고 목란이 경솔하고 마음씀씀이가 좋지 않은 여성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에게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질책하고 화를 내며 싸움을 반복하게 되고 파혼을 생각하게 된다.

이들의 갈등은 절벽에서 떨어진 리상이 살아 돌아옴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리상이 흉노국의 왕궁에 있는 목란을 구출하러 가서 개인의 행복과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중국 영화의 木蘭(「물란: 전사의 귀환」)의 상황을 살펴보자. 柔然族과의 전쟁 초반에 목란은 文泰를 의지하는 마음이 강했다. 문태가 목란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목숨을 구해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문태와 목란이 모두 군사를 지휘하는 장군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문태가 진두지휘를 하고 목란은 그 명을 따르는 형식이었다. 그러다가 목란은 문태의 군대가 위태롭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후방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무조건 그에게로 달려간다. 이 점은 문태에 대한 애정과 집착에서 나온 행위이지만 이로 인해 이군은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때 文泰는 목란의 구조에 감사하지 않으며 그녀가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게다가 그는 목란을 단련시켜 나라를 위한 인재로 만들기 위해 죽은 척하기도 한다. 이처럼 문태는 목란에게 충심을 굳건히 하도록 조련하고 그녀의 충정을 강화시키고 있다.

목란은 전쟁 중에 애정을 중시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니 문태를 포기하고 충을 선택하여 충과 애의 갈등 상황이 종료된다.

두 작품의 갈등 상황은 유사한 듯 보이지만 서구의 애니메이션 「물란 2」는 충과 애가 동등한 위치를 가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중국 영화 「물란: 전사의 귀환」에는 목란이 막판에 단호하게 충을 선택한다는 차이점을 드러낸다.<sup>16)</sup>

## 2. ‘충과 의’의 충돌

충과 의는 본래 도덕적 관념이었지만 모두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 충이 荀子와 韓非子에 이르러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관념으로 전환되면서 의를 압도하게 된다.<sup>17)</sup> 그렇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의를 중시하는 기풍이 남아있었다.

「물란: 전사의 귀환」에는 충과 의가 충돌하는 상황이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다. 北魏는 柔然族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유연족은 木蘭의 군대에게 밀려 고전하고 있었다. 그 기세를 몰아 목란은 유연족을 유인할 계책을 올린다. 대장군은 연전연승하는 목란을 질투하여 후발대를 보내지 않아 목란의 군대가 참패하게 된다. 유연족은 小虎 등을 잡아가서 고통과 모욕을 주며 木蘭의 군대를 자극하지만 목란은 다수를 위해 소수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胡奎는 小虎의 고통스런 모습을 보고 격분을 참지 못하고 목란에게 “그는 당신의 형제다.(他是你兄弟)”라고 소리치며 구출하려고 적진에 뛰어든다. 小虎는 목란의 고향 후배로 절친한 사이였으므로 목

16) 서구의 「물란」, 「물란2」, 『물란: 새로운 여정』은 모두 해피엔딩을 지향하고 있고 중국의 『忠孝勇烈奇女傳』, 「물란: 전사의 귀환」은 비극적 결말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을 주목하게 된다. 이처럼 서구와 동양의 사고방식과 행위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17) 장현근, 상계서, 361, 488쪽 참조.

란도 소호의 죽음을 지켜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목란의 눈망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호규를 저지하며 단호하게 외친다. “너희들은 모두 내 형제다! 나는 너희들을 죽음으로 몰 수 없다!(你們都是我兄弟! 我不能讓你們去送死!)”<sup>18)</sup>

결국 胡奎는 義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木蘭은 忠을 위해 나머지 병사들을 보호하게 된다. 사적인 의리를 고려하면 목란은 당연히 小虎를 구출해야 하지만 더 많은 군사들의 목숨을 위해서는 그를 구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충과 의’의 관념이 충돌하지만 결국 목란이 충을 선택하니 의는 버려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충효 관념이 테마인 목란 서사는 현대로 가면서 애정 고사가 추가되어 내용이 풍부하게 변화되었지만 충과 애, 충과 의는 미묘한 갈등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구의 애니메이션 「물란2」에서는 충과 애가 갈등하지만 중국에는 애의 존재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반면에 중국의 「물란: 전사의 귀환」에서는 「물란2」와 다른 식으로 결말짓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충과 애의 갈등이 형성되는 면은 「물란2」와 동일하나 애를 포기하고 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충과 의의 갈등은 이미 중국의 고전소설 『水滸傳』에서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었는데 영화 「물란: 전사의 귀환」에서도 이러한 전통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호규는 忠義로 충만한 인물이지만 충보다는 의를 선택했고 목란은 의보다는 충을 선택함으로써 忠義 관념의 우선순위를 보여 주고 있다.

18) 黃曦는 「물란」과 「물란: 전사의 귀환」을 비교하면서 서양과 동양적 사고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양은 개인주의적 영웅을 강조하고 동양은 집단주의적 영웅을 숭배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맞는 면이 있긴 하지만 중국 영웅의 범위는 좀 더 폭이 넓다. 중국은 개인주의적 영웅에서 출발하여 후반으로 가면 집단주의적 영웅이 많이 출현한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 집단주의적 영웅은 국가주의를 표방한 영웅이라 하겠다. 「中美兩部『花木蘭』電影對比研究」, 『電影文學』, 2011, 2, 82-83쪽 참조.

#### IV. 목란 이미지의 변화 양상

중국에서 최초로 ‘木蘭’의 존재를 언급한 것은 北朝의 民歌 「木蘭詩」이다. 「목란시」는 330자로 구성된 장편의 서사민가로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다.<sup>19)</sup> 「목란시」에는 목란의 효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나라에 대한 충정은 그리 강조되지 않는다.

우리 부친은 장성한 아들이 없고(阿爺無大兒),  
 목란은 오라비 없으니(木蘭無長兄),  
 안장과 말을 사서(願爲市鞍馬),  
 아버지 대신 군대를 가겠어요(從此替爺征)…  
 천자가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可汗問所欲),  
 목란은 상서랑 벼슬도 싫고(木蘭不用尚書郎),  
 원전대 훌륭한 천리마를 타고(願馳千里足),  
 나를 고향으로 보내 달라고 하네(送兒還故鄉).

木蘭이 출정하게 된 이유는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 대신에 군대를 가야 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나고 개선한 이후에는 관직도 원하지 않고 귀향하기를 희망한다. 요컨대 목란이 부친에게 효도하기 위해 목숨을 걸은 것이지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출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후 清代에 이르게 되면 목란의 이미지는 「목란시」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 여기서는 목란이 나라를 위한 충정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런데다가 현대에 이르면 목란의 이미지는 효녀라기보다는 충정과 애정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목란의 이미지는 기존의 상황을 답습한 것이 아니라 점차

19) 「木蘭詩」의 내용은 대략 6개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목란의 출정 원인, 목란의 준비과정과 전쟁터 도착, 전쟁의 험난한 과정 및 12년 동안 종군하고 개선하기, 목란이 관직을 거부하고 귀가하는 모습, 여성으로서 가족과 즐기는 모습, 목란의 지혜와 용기를 칭송하는 단락으로 나뉜다.

변화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목란의 이미지가 어떻게 다양하게 변모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탐색해 보기로 하겠다.

## 1. 충정과 자기희생의 여성영웅

清代 이후로 중국의 영웅은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중을 위기에서 탈출시키는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 이 때 영웅은 충정이 충만한 가운데서 자기희생까지도 불사하게 된다.

木蘭(『忠孝勇烈奇女傳』)은 출생부터 기이했다. 木蘭山의 신령이 속세에 하강하여 朱氏 집안에 태어난 것인데, 朱天祿의 꿈에는 그녀의 미래를 명징하게 계시하고 있다.<sup>20)</sup>

天祿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玄帝가 초청하여 말씀하셨다. “상제께서는 세상이 혼탁해진지 오래되었으니 唐의 성씨가 장차 흥하게 될 것이다. 仙人을 골라 세상에 내려 보내어 기이한 공적과 대효를 세워 세상을 감복시키는 성인이 되게 하고자 한다. …칙명으로 여러 선인의 여망을 두루 알리는데 모두 눈을 가리고 보지 않아 속세에 殺劫이 일어날 것이니 매우 위태롭고 무서울 지경이다. 木蘭산의 신령은 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으니 감개하여 탄식할 노릇이로다. … 지금 상제께서 염려하시어 그대의 집에 보내도록 명하셨네. 생명을 받은 후에 잘 보살피고 가르치어 본래의 면모를 거의 가리지 않게 되면 仙道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말을 마치고 나서 손으로 한 아이를 받들어 천록에게 주니 천록이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받았다. 다음날 바로 木蘭이 태어났다.

(天祿, 夜夢玄帝招而謂之曰: “上帝以世運之污替久矣, 而唐姓將興. 欲選真仙下界, 建立奇功大孝, 為感代之成人. …敕旨遍諭諸仙眾望,

---

20) 『忠孝勇烈奇女傳』에서는 다양한 꿈을 통해 미래를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복선이다. 독자에게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 힌트인 것이다.

皆掩目不觀, 蓋紅塵殺劫, 岌岌可畏. 而木蘭山靈, 德不自量, 慨然浩歎. …今天顏可懼, 命送汝家. 受生之後, 善視善教, 庶乎不昧本來, 仙道可望也.” 語畢, 手捧一子, 授於天祿, 天祿跪而受之. 次日, 即生木蘭. 8회)

玄帝는 木蘭이 효심을 가지고 공적을 달성하며 신령이 하강한 인물임을 언급한다. 이렇듯이 그녀에게 환상적인 느낌을 부여하고 앞으로 나라와 가정에 있어서 출중한 인물이 될 것임을 예시한 것이다.

木蘭은 신령의 화신으로 翼孝明駝라는 보물낙타를 부릴 수 있고 요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그녀의 활약상은 굉장히 놀랍고 과장되게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녀는 충정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이 점은 간신들의 모략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녀의 영웅성을 확연히 부각한다.<sup>21)</sup>

木蘭의 애국적 충정과 자기희생을 드러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물란: 전사의 귀환」의 목란은 전쟁 중에 北魏의 황자 文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중을 위해 이별하고 있다.

문태: 우리 같이 떠나자. 어디든지 가자. 목란: 예전에 당신이 말한 적이 있지. 자신의 목숨으로 국가의 안녕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문태: 목숨을 버리기는 쉬워도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긴 너무 어렵더라. 목란: 다시는 더 많은 小虎가 있어서 안 되고 더 많은 육친들이 마지막에 피 묻은 군번표를 기다리지 않게 해야 돼. 문태: 알았어. 나를 잊어버려. 목란: 12년 동안

21) 왕과 간신은 영웅의 적으로서 가장 적대적인 방식으로 맞서는데, 이때 『忠孝勇烈奇女傳』의 木蘭은 칼로 자신의 심장을 꺼내는 행동으로써 나라에 대한 충정을 여실히 증명한다. 여성영웅의 귀결이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는 목란에게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蘭花夢』의 松寶珠도 전쟁에 승리하고 귀향하여 가정을 이루었지만 남편의 열등감으로 인해 죽게 되는 비극을 겪는다. 오토 링크 지음, 『영웅의 탄생』, 이유진 옮김, 루비박스, 2016, 177쪽, 金明信, 『蘭花夢奇傳』의 女性英雄과 비극성, 『비교문화연구』 제26집, 2012, 230-240쪽 참조.

나는 매일 전장에서 깨어나 첫 번째로 하는 생각이 바로 당신이었어.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눈을 뜰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 이후 매일 이렇게 했지.

(文泰: 我們一起走吧, 不管去哪裏. 木蘭: 你曾經說過, 如果能用自己的生命, 去換取這個國家的安寧, 你一定會去做. 文泰: 讓我放棄生命很容易, 放棄最愛的人這太難了. 木蘭: 不要再有更多的小虎, 不要再讓更多的親人. 最後直等到一塊帶血軍牌. 文泰: 我明白. 忘了我把. 木蘭: 十二年來, 我每天在戰場上, 醒來的第一個念頭, 就是想起你, 因為有你在, 我才有勇氣把眼睛睜開. 以後的每一天, 也都會這樣. 「木蘭: 전사의 귀환」)

여기서 남녀 주인공의 사랑은 ‘자신을 알아준 나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치밀하게 연출된 것<sup>22)</sup>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행위는 고대 영웅들이 색을 중시하지 않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sup>23)</sup>

이러한 행위는 그야말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자신의 애정을 포기하고 충정을 선택한 자기희생이다. 결과적으로 목란은 大義를 위해 小義를 버린 것으로 그녀의 영웅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22)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고자 柔然族에게 北魏의 황자라는 신분을 밝혔던 文泰가 木蘭의 설득으로 자신들의 애정보다는 나라와 민중을 선택하는 장면은 국가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드러낸다. 즉 나라를 위한 충정이 남녀의 애정보다 우선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柳江夏, 「중국의,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영웅의 귀환」, 『중국소설논총』 제32집, 2010, 9, 399-422쪽 참조.

23) 이 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벤담(Bentham)의 공리주의적인 관점과도 비슷하게 보인다. 墨子의 학설은 서양의 공리주의처럼 보이는 면이 있는데 집단주의적인 면이 강해서 그들의 영웅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보다는 대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 2. 애정과 충정의 갈등 심리 표출

木蘭(「물란2」)은 리상[李翔]과 약혼한 상태로 공주 3명을 호위하여 떠나게 된다. 새끼용 무슈는 花 집안의 수호신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리상과 목란을 이간질하고 그들은 파혼을 고려할 정도로 사이가 나빠진다. 텡텡 공주[婷婷公主], 메이 공주[小梅公主], 수 공주[素素公主]는 화친을 위해 흉노국의 왕자와 혼인하기 위해 조국을 떠나왔는데 각각 야오[阿堯], 링[阿寧], 치엔포[金寶]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목란은 공주들에게 마음가는대로 진실한 사랑을 찾으라는 얘기를 했다가 리상과 싸우게 된다. 리상은 목란에게 ‘우린 아주 운이 좋은 경우’라며 공주들은 나라를 위해 황제의 명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목란은 나라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sup>24)</sup>

갑자기 산적들이 나타나서 공주들을 납치하자 목란과 리상은 합심하여 공주들을 구해낸다. 그러나 산적들이 도끼로 출렁다리의 줄을 끊어버리니 리상은 목란을 살리기 위해 손을 놔버리고 절벽 밑으로 추락한다. 목란은 리상이 죽었으므로 애정을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충을 위해 공주들을 대신하여 흉노국의 왕자와 혼인하려고 마음먹는다. 리상은 충을 달성하기 위해 공주들은 애를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목란은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니 두 사람의 싸움은 충과 애의 대리적 갈등을 나타낸다.

木蘭(「물란: 전사의 귀환」)은 전장에서 자신을 도와준 文泰에게 애정을 느낀다. 한 번은 문태가 선봉에 서고 목란은 후방에서 군량미를 지키게 했다. 그런데 문태가 이끈 군대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목란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사랑하는 문태를 구하러 간

24) 「물란」, 「물란2」의 목란은 개인영웅주의, 자유연애관, 자유평등사상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중국 전통주의적 사고가 아닌 서양적 사고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출판된 『물란: 새로운 여정』도 동일한 서구식 사유 체계를 계승한다. 장침·신지호, 「디즈니 애니메이션 「Mulan」을 통해 본 중국전통 서사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해석의 차이연구」, 『디지털영상학술지』 13권, 2016, 12, 65쪽 참조.

다. 목란이 후방을 떠난 까닭에 아군은 柔然族의 급습을 받아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만다. 이는 목란이 애정을 위해 충정을 돌아보지 못한 경우였다. 목란은 문태에게 마찬가지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문태도 자기를 구하러 오지 않았겠느냐고 묻는다. 문태는 뒤돌아서서 ‘그렇지 않아.’라고 크게 소리치지만 얼굴 표정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때 목란은 문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충심은 아마도 머나먼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전통의 목란 서사에는 남녀의 애정 자체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 「木蘭詩」와 『忠孝勇烈奇女傳』은 주인공의 애정고사를 삽입하지 않아 목란은 충정만을 견지할 수 있었다. 그와는 달리 「물란」, 「물란2」, 「물란: 전사의 귀환」, 『물란: 새로운 여정』에서는 목란과 리상, 목란과 文泰의 애정을 리얼하게 묘사하여 대중들에게 색다른 묘미를 느끼게 한다. 게다가 목란이 애정과 충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을 표현하여 대중들이 작품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고 있다.

### 3. 자아의 성장과 영웅성의 발현

『忠孝勇烈奇女傳』에서 木蘭이 선천적 여성영웅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면 「물란」, 「물란: 전사의 귀환」, 『물란: 새로운 여정』의 목란은 자아를 각성하고 성장하고 나서야 영웅성을 발현하고 있다.

「물란」의 木蘭은 초반부에 애정을 갈망하고 가족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sup>25)</sup> 연약한 소녀의 감성을 지닌 목란은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25) 이 때 목란은 ‘동반자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애정은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으며 상당기간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단기간 내에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목란의 고민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주창윤, 『사랑이란 무엇인가』, 마음의숲, 2015, 207쪽 참조.

날 좀 봐. 나는 절대 완벽한 신부가 되지 못할 거야. 완벽한 딸도 될 수 없어. 아마 난 이 역할에 맞지 않는 걸지도 몰라. 이제 알았어. 진실한 내 자신이 되려면 가족의 마음을 망가뜨려야 한다는 걸.(Look at me. I will never pass for a perfect bride. Or a perfect daughter. Can it be. I'm not meant to play this part. Now I see. That if I were truly to be myself. I would break my family's heart. 「물란」(1998) OST 가사)

우아하지도 조신하지도 못한 목란은 당시 중매쟁이의 기준에 걸맞지 않은 여자였기 때문에 적당한 혼처를 찾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대신해 중군하여 대장 리상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와 결연하게 되니 연분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

木蘭은 출정했다가 중간에 ‘여성’이라는 본모습이 드러나서 雪山에 버려지게 되지만 그대로 귀가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산유[單于]<sup>26)</sup>의 군대에 커다란 타격을 준다. 가녀린 여성이 지혜를 이용하여 거대한 적군과 대적해서 멋지게 승리했으니 인내와 끈기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작품들의 목란은 처음부터 타고난 여성영웅이 아니었고 자아를 각성하고 성장하고 결국에는 자아실현의 일환으로 세상에 우뚝하니 서게 된 것이다. 목란이 자아를 자각하게 된 장면을 보기로 하겠다.

그녀는 사자의 갈기를 움켜쥐고 검을 들었다. “어떻게든 갚을게. 우리 둘 다 산을 오르려면 이게 필요해.” 쉬쉬의 오렌지색 눈이 공포에 질려 휘둥그레졌다. 날쌔 칼질 한 번으로 물란은 한 움큼 잘라내고는 손과 발에 갑옷 판과 칼날을 묶기 시작했다. “내 갈기!” 쉬쉬가 소리쳤다. 물란은 쉬쉬에게 사과하는 표정을 지어보이다가, 아버지

26) 산유는 거대한 몸집과 새까만 눈을 가진 악당의 이미지로 목란의 가냘픈 몸매와 대조된다.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산유는 날쌔고 영리한 목란에게 당해내지 못하고 공중으로 사라지는 적대자라 하겠다.

의 갑옷을 흠치기 전에 자신의 머리를 자르던 일이 떠올랐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자신의 오랜 자아에 묶여 있던 끈들을 잘라내고 물란에서 평으로, 신붓감에서 병사로, 순종적인 딸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여성으로. “다시 자랄 거야.” 물란이 부드럽게 말했다.(『물란: 새로운 여정』 13장 162쪽)<sup>27)</sup>

이처럼 목란은 전쟁에 참여한 남장여인이자 신붓감이 되기로 원하는 효성스런 딸로 남들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중시했다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여성으로 자각하게 되고 결국 영웅성을 발현하게 된다.

또한 木蘭은 죽어가는 리상 대장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염라대왕<sup>28)</sup>과 내기하여 동이 트기 전에 지옥을 빠져 나가기 위해 온갖 시련을 겪는다. 그녀가 리상을 구하려는 이유는 죄책감도 있지만 중국이 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목란의 영웅성이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다.

서사에 근거하여 작품별로 木蘭 형상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도표화 할 수 있다.

〈표〉 작품별 목란 형상의 변모

작품명	목란 형상의 변모
『忠孝勇烈奇女傳』	효심+충정→효심<충정
「물란」	효심>애정→효심<애정+자아각성
「물란2」	충정<애정→충정≤애정
「물란: 전사의 귀환」	효심+애정>충정+의리→충정>애정
『물란: 새로운 여정』	애정+자아성장→애정≥충정

27)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엘리자베스 림 지음, 『물란: 새로운 여정』(성세희 옮김, 라곰, 2020)을 참조한다.

28) 염라대왕은 목란의 적대자 중의 하나로 맹포에게 지시하여 목란이 리상을 지옥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시험한다.

## V. 주변인물 이미지의 현대적 변용

현실 생활에서 우리는 비언어적 행위 없이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말이나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일상생활의 정보전달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부에 해당된다. 사실 스토리텔링의 상당부분은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sup>29)</sup>

고전소설은 단순히 문자만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따라서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는 비언어적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관객들의 이해를 훨씬 빠르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물란」, 「물란2」, 「물란: 전사의 귀환」은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를 사용하여 인물의 이미지와 서사 내용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목란의 주변인물은 「木蘭詩」에 비하면 상당히 많아졌는데 두드러진 이미지를 가진 인물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환상성을 지니면서 조력하는 인물, 현실 상황에서 목란에게 조력하는 인물, 표면적으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1. 환상적 조력자-무슈, 쉬쉬

무슈(Mushu, 木須)는 花氏 가문의 수호신으로 목란이 전장에 나가도록 독려하고 불로 변하여 대포를 쏘게 하는 등 조력하는 새끼용이다. 그러나 「물란2」에서는 오히려 목란의 애정을 방해하다가 뉘우치고 다시 조력하고 있고 『물란: 새로운 여정』에서는 초반부와 후반부에 출현하고 있다.<sup>30)</sup> 그의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을 보기로 하자.

29) 김연순, 『스토리텔링의 사회문화적 확장 and 변용』, 북코리아, 2011, 309쪽 참조.

30) 『물란: 새로운 여정』에서는 쉬쉬가 전방위적으로 활약하고 무슈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엘리자베스 림이 새로운 각도에서 작품을 창작했으므로 쉬쉬의 등장은 참신한 느낌을 준다.

“내 잘못이야. 산유가 나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상이 대신 맞았어.” “이봐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었어. 상이 아니라 네가 다쳤을 수도 있다고. 적어도 넌 살아 있잖아.” 무슈가 대답했다. 물란이 자신의 수호신에게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네.” “내가 뭘.” 물란은 무슈를 무시하고 목도리를 풀었다. “모두들, 내게 목도리를 줘. 상을 지혈해야겠어.”(『물란: 새로운 여정』 2장 23쪽)

목란은 리샹이 다친 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서 자책하지만 무슈는 오히려 그녀가 부상당했을 수도 있었지만 살아있으니 다행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위로는 목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자기 집안사람만 무사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상당히 이기적으로 느껴진다.

용은 본래 중국을 대표하는 고귀하고 상서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서구인의 시각이 투영되었기 때문에 무슈는 다소 코믹하고 수다스럽고 경망스러우며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sup>31)</sup> 이 점은 서양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쉬쉬(ShiShi, 石獅, 『물란: 새로운 여정』)는 리 가문의 수호신 돌사자인데 목란을 지옥으로 안내하고 그녀를 조력하는 환상적 존재이다. 다음은 쉬쉬가 등장하는 장면이다.

물란이 위를 쳐다보고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다. 거대한 돌사자였다! 칸만큼 키가 크고 천막만큼 몸집이 컸다. 둥근 두 눈은 오렌지색이었고, 목에는 우아한 옥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가 앞발을 눈발으로 뺨으며 단도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다. 물란은 겁을 휘두르면서 다른 병사들을 깨우기 위해 입을 열었다. 그러자 돌사자가

---

31) 실수를 연발하는 행동이나 경망스런 목소리 등은 디즈니로 대표되는 서구에서 무슈를 중국의 허장성세를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비유이다. 안정훈, 「『물란』에서 「쿵푸팬더」까지: 허리우드 애니메이션에 담긴 중국 재현과 중국 관념」, 『中國小說論叢』 32집, 2010, 9, 427쪽 참조.

달빛 속으로 거대한 발을 내밀었다. “너…정체가 뭐지?” “나는 쉬쉬다.” 돌사자가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마치 그녀가 감명 받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물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물란: 새로운 여정』 5장 63쪽)

남에게 돋보이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위풍당당한 기개를 드러내고 있는 쉬쉬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이다. 무슈가 수다스럽고 불완전하다면 쉬쉬는 당당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면에서 상당히 다르다.

쉬쉬는 지옥의 문 앞에서 목란이 요정의 피가 좀 흐르는 존재라고 우겨서 문지기 악령들에게 통과시키게 하고 리상이 목란의 정체를 의심하자 그녀가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하려 했음을 보증하기도 하며 가마솔 지옥에서 마법의 검<sup>32)</sup>을 사용하라고 조언하는 등 여러 가지로 목란을 돕고 있다. 그런 면에서 쉬쉬는 목란을 곁에서 조력하는 환상적 존재라 할 수 있겠다.

## 2. 현실적 조력자-喪棼 대사, 小虎

喪棼 대사(『忠孝勇烈奇女傳』)는 木蘭에게 무술을 직접 전수해주는 인물이다. 상오 대사는 본래 장군이었으나 불교에 귀의했다. 목란이 출정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72가지 창법을 가르쳐준다.

李靖이 말했다. “그는 왼쪽 귓문에 손가락만한 붉은 점이 있소?”  
木蘭이 말했다. “있습니다.” 이정이 말했다. “그는 눈썹 뼈가 높고 솟고 콧대가 약간 부러지지 않았소?” 목란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

32) 마법의 검은 ‘태양의 검’이라고도 하는데 수천 년을 살았던 반신반인의 것으로 무엇이든 자를 수 있어서 악령과 유령의 검까지도 벨 수 있다고 한다. 이 검은 영웅의 마음을 가진 인물만이 쓸 수 있으니 목란이 영웅임을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하다.

정이 말했다. “그대가 사용한 것은 伍家の 창법이고, 喪吾 화상은 伍雲召입니다.”

(李靖道: “他左耳門有指頭大的一個朱砂痣否?” 木蘭道: “有的.” 李靖道: “他眉骨高起, 鼻梁微斷否?” 木蘭道: “是的.” 李靖道: “我說你所使的是伍家鎗法, 這喪吾和尚, 是伍雲召了.” 『忠孝勇烈奇女傳』 14회)

李靖은 木蘭의 창법을 보고 나서 喪吾 대사가 伍雲召 장군이라고 추측해낸다. 상오 대사가 목란에게 창법을 전수한 것은 결국 속세의 인연을 끊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불가인이라도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상오 대사는 국가와 민생을 위해 목란을 도와준 것이다.<sup>33)</sup>

소호(費小虎, 「물란: 전사의 귀환」)는 처음에 마구 뛰놀고 돌아다니는 장난꾸러기 소년처럼 등장한다. 그는 木蘭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목란과 남매처럼 친한 사이였다. 전장에 나타난 목란이 정체를 숨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소호는 막사의 가장자리에 배치하도록 도움을 준다. 하물며 그녀가 柔然族의 습격으로 文泰가 전사했다고 여기고 자포자기해서 술만 마셨을 때에도 질책하며 정신 차리게 도와주기도 한다. 이처럼 소호는 목란이 강인한 군인이자 영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일조하는 조력자라 볼 수 있다.

### 3. 표면적 적대자-獨手大仙, 멍포

獨手大仙<sup>34)</sup>(『忠孝勇烈奇女傳』)은 백여우 요괴로 木蘭山에서 천년 동안 수행을 하다가 木蘭이 山靈의 화신임을 알고 그녀의 정기를 흡수하고자 했으나 목란에게 다리가 잘린다. 이후 독수대선은 突厥의 軍師로

33) 중국의 고전소설은 등장인물의 사상과 행위에 儒佛道의 영향을 드러낸다. 서로 다르다고 배타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34) 「물란」의 實寫板 「물란(Mulan, 2020)」에는 환술을 부리는 仙娘이 등장하는데, 獨手大仙처럼 목란의 적대자인 흉노족에 가담한 요괴이다.

기용되어 목란에게 복수하고자 하여 늙은 여우를 朱天祿 부부로 변신시켜서 성루에 매달고 빨리 항복하라고 권한다.

獨手大仙이 말했다. “朱將軍, …그대는 잘 생각하십시오. …吳起는 西河의 郡守가 되어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奔喪하지 않았다고 지금 까지도 사람들에게 모질게 욕을 먹고 있소. 하물며 부모님을 고집부리고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천세 후에 장군이 사람들에게 멸시당할까 걱정되오.”

(獨手曰: “朱將軍, …子細思之. …吳起為西河守, 父死不奔喪, 至今尚為人所唾罵. 況父母被執不救, 吾恐千世之後, 將軍為人所不齒也.” 『忠孝勇烈奇女傳』 24회)

이처럼 獨手大仙은 교활하게 木蘭의 효심을 자극하여 임시변통으로 항복하라고 유혹하지만 朱明이 목란에게 요망한 말을 듣지 말라고 조언하여 독수대선의 계획은 실패하게 된다.

멩포(MengPo, 孟婆, 『물란: 새로운 여정』)는 다양한 이미지로 변신하여 동이 트기 전에 지옥을 탈출하려는 목란과 쉬쉬, 리상을 시험하며 적대적으로 행동한다.

처음에 키 작은 노부인으로 등장하여 목란과 리상, 쉬쉬를 누각으로 초대하여 차를 마시자고 한다. 차향에 취한 쉬쉬가 어눌한 말투를 쓰는 걸 보고 목란은 리상에게 차를 못 마시게 한다. 그 때 늑대 악령들이 그들을 공격하지만 간신히 동굴로 피하게 된다.

두 번째는 바위 아래 깔린 적갈색의 여우로 나타난다. 목란이 일행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가 여우를 도와주고 나서 어두운 터널을 따라간다. 갑자기 목란의 가족들이 목란에게 차를 마시도록 유혹하는데, 상과 쉬쉬가 환상이라고 경고하여 위험에서 벗어난다. 그러자 멩포는 모래 속으로 사라지고 집터는 넓은 사막으로 변하고 뒤틀려 있는 몇 그루의 나무와 모래 언덕들과 돌풍, 그리고 모래만이 남아 있었다.

세 번째로 거울의 지옥을 통과할 때도 멩포가 환상을 주관한 것이었

다. 목란이 가족과 이웃의 비난, 리상과 전우의 배신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자 은은한 분홍색 비단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된 멩포가 나타난다.<sup>35)</sup> 그리고 마지막 관문 거울의 지옥을 통과했다고 하며 염라대왕을 대신하여 시험했다고 말한다.

멩포는 전설의 반신반인이라 마법의 검의 주인임을 밝히고 자신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반신반인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그는 마법의 검을 휘두르던 영웅이였대요. 이런 검이요.”  
 “네 아버지의 말이 맞아. 다만 그 영웅은 그가 아니라 그녀였어. 바로 나거든.” 목란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이 검은 당신 거네요.”  
 “그렇지. 내 아버지는 신이었고 내 어머니는 인간이었어. 내가 남자 애였다면 아마도 천국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살았을 거야. 하지만 잡종 소녀는 신들의 눈에 아무 쓸모가 없었어. 그래서 난 아버지에게 나를 증명해 보일 방법을 찾았고, 결국 제국의 군대에 입대했어. 나는 여자지만, 반은 신이니까 황제가 물리치지 못했던 거야. 그렇다고 남자들이 나를 존중했다는 뜻은 아니야. 어쨌든 처음엔 말이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노력한 끝에 그들에게 존중받게 되었지.”(『목란: 새로운 여정』 29장 374쪽)

멩포는 목란에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처럼 고난을 극복하고 영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격려한다. 또 상처를 치료해주고 새 옷을 입혀주며 목련꽃을 선물하더니 학으로 변해 날아간다. 멩포는 표면으로는 적대자였지만 목란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준 인물이다.

이렇듯이 목란의 주변인물은 환상적 조력자, 현실적 조력자, 표면적 적대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상적 조력자는 현실과 비현실계를 넘나들면서 목란을 독려하거나 조력하고 있고 현실적 조력자는 목란에게

35) 멩포는 카멜레온처럼 다양하게 변신하여 악인처럼 보이지만 목란의 성장을 돕기 때문에 표면적 적대자지만 궁극적으로는 조력자가 된다.

직접적으로 무술이나 계책 등을 전수하거나 질책하는 등의 도움을 주며 표면적 적대자는 獨手大仙처럼 적대감을 가지고 사술로 대적하는가 하면 멍포처럼 온갖 시련을 겪게 하다가 결국에는 목란의 영웅성을 인정하고 호의적으로 변화한 경우가 있다.

## VI. 나오는 말

목란 관련 연구는 인물 형상, 서사 비교, 정치이데올로기, 색채 표현, 문화, 여성주의, 교육, 음악 등 다방면으로 나왔지만 대부분 애니메이션 「물란」과 「木蘭詩」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목란 서사는 중국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활용되어 『忠孝勇烈奇女傳』, 「물란」, 「물란2」, 「물란: 전사의 귀환」, 『물란: 새로운 여정』과 같은 수많은 작품들이 출현했다.

목란 서사는 忠·孝·義의 관념을 반영하고 있는데, 현대에 이르러서 애정과 결합되어 미묘한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물란2」, 영화 「물란: 전사의 귀환」에서는 충과 애, 충과 의가 갈등을 일으키지만 결국 충이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목란은 효녀의 이미지에서 근현대 작품으로 가면서 좀 더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충정과 자기희생의 여성영웅에서 애정과 충정의 갈등 심리를 표출하는 여성이자 자아의 성장과 함께 영웅성을 발현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목란의 주변인물은 근현대에 이르면 「木蘭詩」보다 풍부하게 창조되었다. 그중에서 두드러진 이미지를 가진 인물은 환상적 조력자, 현실적 조력자, 표면적 조력자로 분류할 수 있다.

환상적 조력자는 무슈, 쉬쉬가 대표적이다. 무슈는 수다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새끼용으로서 목란을 원조한다. 쉬쉬는 위풍당당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돌사자로 지옥에서 목란을 보조한다.

현실적 조력자는 喪棼 대사와 小虎로 대표된다. 喪棼 대사는 목란에게 무술을 직접 전수하고 小虎는 슬픔에 빠진 목란이 정신 차리도록 질책하는 인물이다. 표면적 적대자는 獨手大仙, 멍포로 대표된다. 獨手大仙은 백여우 요괴로 사술을 부리며 목란을 괴롭히고 멍포는 노부인, 여우, 학 등으로 변신하여 목란이 지옥에서 리상을 구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러나 멍포가 임무에 실패한 후 깨끗이 승복하고 호의적으로 변하여 목란을 축복한다는 면에서 독수대선과 구별된다.

## Ⅰ 참고문헌

- 이덕형 지음, 『이콘과 아방가르드: 초월적 성스러움과 문화적 표상』, 생각의 나무, 2008.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이미지연구소 편, 『몸 이미지 권력』, 도서출판 앨피, 2010.
- 김영순, 『스토리텔링의 사회문화적 확장 and 변용』, 북코리아, 2011.
- 이유경, 『고전문학 속의 여성영웅 형상 연구』, 보고서, 2012.
- 모린 머독 저, 『여성영웅의 탄생』, 고연수 역, 교양인, 2014.
- 주창윤, 『사랑이란 무엇인가』, 마음의숲, 2015.
- 오토 링크 지음, 『영웅의 탄생』, 이유진 옮김, 루비박스, 2016.
- 장현근, 『중국의 정치사상 관념의 변천사』, 한길사, 2016.
- 엘리자베스 림 지음, 『물란: 새로운 여정』, 성세희 옮김, 라곰, 2020.
- 이영숙, 『木蘭 形象의 時代 變遷과 文化 受容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3.
- 이지붕, 『木蘭 이미지 변천에 대한 연구: 목란 영화 속에 나타난 타자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20.
- 여인,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중국 목란 전설의 변형과 한국에서의 수용: 중국의 목란 이야기와 디즈니 애니메이션 「물란」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12.
- 장침, 「디즈니 애니메이션 「물란」을 통해 본 중국전통 서사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해석의 차이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17.
- 안정훈, 「木蘭詩에서 「물란Mulan」까지 - 이야기의 변화와 문화적 혼종성」, 『중국어문학논집』 제34집, 2005, 10.
- 김하림, 「『木蘭詩』에서 애니메이션 『물란(MULAN)』으로」, 『중국인문과학』 제43집, 2009, 12.
- 유강하, 「중국의,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영웅의 귀환」, 『中國小說論叢』 제32집, 2010, 9.

- 김명신, 「『蘭花夢奇傳』의 여성영웅과 비극성」, 『비교문화연구』 제26집, 2012, 3.
- 우강식, 「무협소설과 무협영화의 상호텍스트성과 미학적 변화에 관한 고찰- 金庸의 『笑傲江湖』, 『鹿鼎記』와 영화 『笑傲江湖』(1991), 『鹿鼎記』(1992)를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제40집, 2013, 8.
- 김명신, 「영화 『畫皮』에 나타난 원전 서사와 변용」, 『中國小說論叢』 제42집, 2014, 4.
- 장침 · 신지호, 「디즈니 애니메이션 『물란』을 통해 본 중국전통 서사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해석의 차이연구」, 『디지털영상학술지』 13권, 2016, 12.
- 이영숙, 「물란의 정치학: 『木蘭詩篇』에 나타난 문화개방 및 소수민족 정책」, 『중어중문학』 제66집, 2016, 12.
- 김명신, 「『忠孝勇烈奇女傳』의 悲劇的 女性英雄」, 『中國小說論叢』 제59집, 2019, 12.
- 古本小說集成編委會編, 『忠孝勇烈奇女傳』, 上海古籍出版社, 1993.
- 中國古代珍稀本小說續編委會編, 제9권 『忠孝勇烈奇女傳』, 春風文藝出版社, 1997.
- 關詩, 「『花木蘭』—電影音樂評論」, 『音樂生活』, 2010, 2.
- 陳洪英, 「論『木蘭辭』與『花木蘭』電影的改編」, 『電影文學』, 2010, 5.
- 黃曦, 「中美兩部『花木蘭』電影對比研究」, 『電影文學』, 2011, 2.
- 孫丹丹 · 丁冠楠, 「花木蘭, 定居好萊塢的公主」, 『電影』, 2012, 3.
- 李夏, 「從“編碼·解碼”理論淺析電影『花木蘭』」, 『新聞研究導刊』, 2017, 1.

❖ ABSTRACT

## Chinese Mulan's Narrative and Modern Image Transformations

Kim, Myungsin  
Han Yang University

This article targets Chinese Mulan's narratives, modern animations, movies, and novels, in order to examine the ideas of loyalty and justice, the conception of conflicts of love, changes in the portrayals of Mulan's image, and the images and roles of surrounding characters.

The narrative of Mulan reflects the concepts of loyalty and justice, which were combined with the concept of affection during modern times, resulting in all three of these concepts forming a delicate conflict. In the animated movie, "Mulan 2," and the film "Huamulan," the tensions between loyalty and love, and between loyalty and justice, all cause conflicts in the characters' lives, but loyalty remains the priority.

Mulan has a diverse range of images, beginning with the image of a filial daughter in modern and contemporary works. In short, as the female hero of loyalty and self-sacrifice, she is a woman who manifests the conflict between affection and loyalty, and presents various images of herself as she expresses her heroism, and transforms her ego.

In modern times, the surrounding figures were much more abundant than those of the "Mulanshi." Among them, figures with prominent images were classified as fantastic assistants, realistic assistants, and surface assistants.

The fantastic assistants are Mushu and Shishi. Mushu supports Mulan

as a baby dragon, and portrays a chatty and ridiculous image. Shishi is a stonemason who seeks perfection and majesty and supports Mulan while she is undergoing hell.

The truly valuable helpers are Sangwu monk and Xiaohu, Sangwu monk teaches hands-on martial arts to Mulan, and Xiaohu rebukes Mulan to wake her up from her grief.

Surface adversaries are represented by Dushoudaxian and Mengpo. Dushoudaxian is a white fox monster, and Dushoudaxian uses magic in order to harass Mulan. Mengpo transforms into an old lady, a fox, a crane, and other figures, in order to prevent Mulan from rescuing Li Xiang from hell. However, Mengpo differs from Dushoudaxian in that she cleanly accepts and blesses Mulan after she fails her mission.

Key Words : Mulan, Zhongxiaoyonglieqinüzhuan, Mulan 1, Mulan 2, Huamulan, Female hero, Image, Transformation

■ 논문접수일 : 2021. 02. 10

■ 심사완료일 : 2021. 03. 14

■ 게재확정일 : 2021. 03. 15